



2020~2022년 미국 개인연금보험 전망

권오경 연구원

미국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위축된 후 점진적 경기 개선 및 은퇴인구 증가로 2022년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변액연금 판매는 2020년 감소하나 2021년 반등 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정액연금 판매는 저금리 영향으로 2021년까지 감소하여 2022년에는 반등하나 기존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유사하나 저금리로 인해 실적 개선 속도저하가 예상되어 보험회사의 민첩하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됨

■ 미국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지난 10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2019년 정점을 맞이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감소한 후 점진적 경기 개선 및 은퇴인구 증가로 2022년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음¹⁾

- 미국 생명보험 연구기관인 LIMRA는 전체 개인연금 수입보험료가 2020년 -15~-8% 감소 후²⁾ 2021년 반등하여 2022년에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 또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2020년 감소 후 2022년 회복 또는 소폭 성장하고, 정액연금 수입보험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 후 2022년에는 반등하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³⁾
- 개인연금 시장 변화의 주요인으로 COVID-19 발생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미국의 은퇴인구 증가가 연금상품 신규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고려됨
 - 미국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이후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확대가 예상되어⁴⁾ 개인연금 상품의 신규수요 증가가 기대됨
 - 기타 전망 고려요인으로 COVID-19으로 인한 사업중단 증가, 2020년 말 예정된 대선 및 규제변화 불확실성 등이 개인연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 Todd Giesing, Teddy Panaitisor, and Teddy Panaitisor(2020. 6. 8), "A Future View of U.S. Annuity Sales - Will History Repeat Itself? U.S. Individual Annuity Market Forecast 2020 - 2022", LIMRA

2) LIMRA는 2020년 감소폭이 2008~2009년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함

3) 미국 개인연금 시장은 2019년 USD 2,417억으로 비중은 각각 변액연금 42.2%, 정액연금 57.8%이었음

4)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18/cb18-41-population-projections.html>

■ 변액연금 판매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저금리로 인한 최저보증수의 하락으로 2020년 감소하나 지수연계형 상품 성장으로 2021년 반등 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2020년 -15%까지 감소하여 2022년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고, 특히 지수연계형 상품(RILA: Registered Index-Linked Annuities)⁵⁾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지수연계형 상품은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선호로 기존 변액연금 상품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USD 300억 규모로 전체 변액연금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정액연금⁶⁾ 판매는 금리하락 영향을 크게 받아 2021년 감소하여 2022년에 반등하나 기존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수형 상품이 정액연금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지수형 상품 판매는 2020년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수입보험료가 -25%까지 감소하여 2021년부터 경제 개선 및 저금리로 제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나 2022년 은퇴인구 확대에 따른 성장이 예상됨
- 거치형 상품은 안전자산 선호로 2020년 전년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저금리 지속 및 증시 개선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며 2022년 경기 개선으로 판매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⁷⁾ 기대됨
 - 거치형 상품은 증시가 개선되면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도 감소로 판매가 하락하고 저금리 여건은 실적 악화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 즉시형 및 연기형 상품 판매는 COVID-19 타격이 가장 커서 2020년 수입보험료가 -40% 감소 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COVID-19으로 인한 미국 개인연금 시장 실적 악화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유사하나 저금리로 인해 실적 개선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의 민첩하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 노력이 요구됨

-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변액연금 실적은 이전 수준으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는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의 옵션을 더욱 악화시켜 보험회사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임
- 정액연금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안전자산 선호로 상품경쟁력이 있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이러한 강점은 상쇄되어 실적 개선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됨 **kiqi**

5) 지수연계형 변액연금은 특정 지수와 연계된 투자옵션을 가지는 변액연금 상품으로 지수형 정액연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Guillaume Briere-Giroux and Dean Kerr(2015), "Hybrid Annuities, A Growth Story", Oliver Wyman)

6) 정액연금(Fixed Annuities) 상품은 지수형(Indexed Annuities), 거치형(Fixed-Rate Deferred Annuities), 즉시형(Single-Premium Immediate Annuities), 연기형(Deferred Income Annuities) 상품이 포함됨

7) 이 외 LIMRA는 2022년 경기 개선과 함께 2018~2019년 판매된 체감식판매보수(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CDSC: 상품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수수료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함) 계약의 상당부분에서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